

## 病院藥局과 藥劑學

盧 台 宣

高大 醫科大學附屬 友石病院 藥局長

藥劑學은 藥學教育에서 一分科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藥劑學을 論하기 前에 먼저 藥學教育의 本質을 究明하지 않고서는 藥劑學만이 獨自的인 立場을 取하기는 매우 힘든 것이며 거의 不可能하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藥學教育 即 韓國의 藥學教育이 世界 共通的科學의 藥學教育和 얼마나 差異가 있으며 그 差異點이 무엇이며 共通點은 무엇인가를 確固히 하지 않는 限 莫然한 藥學教育을 現實的인 眼目에서만 생각한다면 또한 結論은 나오지 못할 것은 當然하며 너무도 明確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藥學教育의 本質과 進路가 明確히 되지 않는 限 一分科에 지나지 않는 藥劑學의 姿勢가 설 수 없으며, 또 病院藥局과 藥劑學의 題目조차 意義를 찾기 힘든 것이다.

現在 病院藥局 뿐만 아니라 우리 藥界가 어떤 意味에서 相當히 방황하고 있음은 事實이며, 實際로 病院藥局도 이런 根本的인 것에서 確固한 概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事實인 것이다. 우선 病院藥局의 主要構成은 藥師임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病院藥局은 藥師의 能力 如何에 따라서 左右되는 것으로 認識되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病院藥局을 생각하기 前에 가장 根本的인 것은 藥局教育和 藥師교육을 생각하여야만 하겠다. 다시 말해서 現在 우리의 藥學教育이 藥師教育에 얼마만큼 比重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 問題가 될 것이다.

다음 藥師教育에 있어서 藥劑學의 比重과 方向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藥劑學이란 藥學教育中에서 가장 藥師教育에 直結되어 있는 科目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藥學教育을 받은 中에서도 藥劑學教育을 올바르게 받은 사람이 藥師이며, 이 藥師中에서의 一部가 病院藥局을 담당하고 있는 病院藥局藥師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생각하면 藥劑學이 藥學教育에 있어서의 位置와 使命과 方向과 比重이 定立되어야 하며 이렇게 한 것이 定立되지 않는 限 藥師로서 藥界에 일할 수 있는 各分野의 問題를 論할 必要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러한 것은 根本的인 問題이며 根本的인 것이 確固하지 않고서는 病院藥局과 같은 藥師活動分野의 一部에 지나지 않는 것에 言及이 困難하며, 現在까지 이러한 困難을 局部的으로 解決코자 病院藥局에서 努力한 바도 있었으나

역시 成果를 期待할 수 없음을 못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바이다.

病院藥局과 藥劑學의 教育的 根本的인 것은 上述한 바와 같거니와 病院藥局이란 觀念이 우리나라에서 좀 色달리 불리워지고 있는 것, 또한 事實이라 하겠다. 그러나 病院藥局이란 病院에 屬해 있는 位置의 명칭에 不過한 것이며 病院을 떠난 藥局과 病院藥局과는 何等的 다른바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實際로 달라지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藥局의 主要한 任務는 藥師가 處方을 調劑하는 場所로 定義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處方은 醫師가 發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韓國에서의 이러한 定義에 適合한 곳이라면 現在로서는 病院藥局 뿐이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서 韓國은 藥劑學의 一分科로 되어있는 調劑學이 病院藥局을 爲主로 한 教育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藥劑學中の 製劑學에 屬해 있는 部分도 病院藥局 또는 製藥工場에 所要되는 教育이라 할 것이며 大部分은 工場에서 보다도 病院藥局製劑室에서 適應되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點에서 구라과의 여러나라의 藥大에서는 藥劑學은 galame pharmacy로 불리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現在 藥劑學에서의 根本的인 큰 問題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어떤 意味에서는 韓國의 藥劑學은 理論的으로 病院藥局을 爲한 藥劑學인 것이다. 病院藥局에서는 醫師가 發行한 處方에 依해서 調劑하며 製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病院藥局을 모르는 藥師가 排出되고 있는 것이다. 病院藥局 藥師는 病院藥局을 우선 알기 前에 病院을 알아야 할 것이다. 職場으로서 病院을 알아야 하며 職場의 一部の 病院藥局을 그러한 知識에서 알아야 할 것이다.

病院藥局은 알면서 病院을 모르면 이 또한 詰를발이의 職工에 不過한 것이다. 마치 큰 工場에서 무엇을 生産하는지 알 수 없으며 그저 하나의 磁石을 만들고 있는 職工과 現在 藥局 藥師와의 다른 點을 찾지 힘들어 가고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病院의 主要構成이 法的으로 醫師와 藥師와 看護員을 規定하고 있음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은 아닐 것이다. 또한 이 要員의 教育은 어테서나 臨床이란 過程을 밟지 않은 要員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藥師만이 이 過程을 履修치 않고 藥局藥師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藥師를 教育하고 있는 藥學大學에서 이미 이런 過程없이도 할 수 있는 特別한 敎科를 敎育하였다는 것인지 反問하지 않을 수 없다. 韓國의 病院도 世界 다른 여러나라의 病院과 다른 制度가 아닐진대 이러한 未及한 點을 藥學敎育中에서도 藥劑學에서 學問의 理論과 實際를 뒷받침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自明한 일이다.

即 藥劑學에서 病院藥局의 實際敎育方案을 樹立하여야 하며 그 方法과 內容은 韓國에서의 藥師病院敎育의 形態와 內容에 따라서 定하여야 할 것이며 理論的으로 一律的인 것을 論한다는 것도 역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現在 우리나라의 藥學大學에는 分科되어 있는 곳과 分科가 되어있지 않은 곳이 있다. 分

과되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모두 藥師免許證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는 이상 分科되기 以前의 藥學敎育과 藥師의 關係는 何等の 差異가 없는 것이며 단지 學校에서 어떠한 便宜上에서 定해진 것에 不過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病院藥局에 從事할 藥師는 어느 科를 履修했든지 相關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分科되어 있긴, 없건간에 藥學敎育은 共同으로 藥局을 가르켜야 하며 藥品을 가르켜야 된다고 본다.

특히 病院藥局에서는 藥師가 主動으로 일하고 있는 以上 韓國에서는 오히려 一般 開局科와 病院藥局科가 分科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現實的敎育이 될 것이다. 韓國에서의 一般 開局藥師는 處方을 解讀하는 것보담은 處方을 찾아 낼 수 있는 能力이 있어야 하며 同時에 處方의 應用力이 必要하다. 그러나 病院藥局藥師는 우선 處方에 限해서는 解讀力과 調劑法이 익숙해야 하며 發展해 가는 病院藥局的 製劑에 익숙해야 함이 基本的인 要素이다.

다음 病院藥局은 醫師와 看護員과 患者에 둘러쌓인 곳인만큼 一般 開局藥師와는 與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藥을 取扱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與件에 맞는 知識의 保有者라야 한다는 것과, 取扱되고 있는 藥品은 藥師의 個人運營物이 아니라 公共物이라는 性格의 差가 우선 適當히 個人的인 생각에서는 運營될 수 없는 要素가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藥品일지라도 時時刻刻으로 藥의 性質, 作用, 商品에 關한 知識交換의 要素가 常識以上の 知識을 가진 醫師 看護員과 對話가 되어야 하며 또한 技術的인 提言을 患者에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技術的인 問題로는 藥師自身の 생각으로 藥을 患者에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醫師의 要求에 依한 藥品의 適合性を 判斷하여야 하며 이에 對한 自身の 技術을 投入하여야 하는 것이다. 製劑上의 問題도 차츰 病院藥局的 製劑가 늘어가고 있으며 相當히 理論과 技術을 要하는 業務가 增加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에 따르는 기계의 操作은 病院藥局 業務程度에서도 問題가 되어 있는, 形便이며 보다 專門化된 製藥工場에서는 더욱 심각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것은 病院藥局 基本業務와 藥師의 知識能力問題이며 더 나아가서는 病院藥局的 運營에 對한 經濟問題, 人力問題, 藥品管理問題에 對한 敎育이 問題가 되고 있으니 이 또한 藥學敎育에서 考慮하여야만 할 것이다.

특히 現代 病院藥局 藥師에 새로히 臺頭되고 있는 臨床藥學問題에 對해서는 여러가지로 提意되어야 할 點이 많으나 別途로 提意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省略하고자 하는 바이다. 問題는 藥劑學이 全般的으로 理論보다는 藥師의 實際活動部署에 適合한 技術의 習得을 爲主로 하여야만 되겠다는 點과 이에 對한 校內實習과 校外實習이 正式으로 區分되어 하나의 科學으로 分離形成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이다. 이러한 問題點에서 病院藥局的 實習이 또한 藥劑學課程에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現在 一部 藥大生들의 希望者에 대하여 放學期間內에 實行하는 1~2週의 實習은 實習이 아니고 見學에 不過한 것이며 實際로 實習을 한 藥師는 最近 數年內에 걸쳐 거의 없다고 하겠다. 病院藥局實習의 重要性和 必要性에 對하여는

이미 藥大自體가 問題視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이에 對한 說明 또한 略하기로 하고 藥劑學과 病院藥局實習의 關聯性을 하루 바빠 찾아야만 하겠다. 以上 大體의으로 病院藥局과 藥劑學의 教育任務에 對하여 論하였거니와 實際로 現在의 藥劑學教科目에 對하여 病院藥局的 한 사람으로서 提議하고 싶은 것은 藥劑學이 보다더 藥師를 養成하는 直接的인 科目으로서 現在의 教育의 內容에 對하여 言及하고자 한다.

### 1. 調劑學을 製劑學과 分離強化함이 좋겠다.

現藥劑學內에 極少한 一部로 수록된 것만으로는 現在 藥師가 藥局 또는 病院藥局에 從事하기에는 너무도 尠少적으로 흐르고 있으며 特히 現代藥品의 調劑에 關한 것은 勿論이러니와 調劑에 使用되는 藥品의 現實性이 全혀 결여된 感이 있는 것이다.

現在의 藥局藥師로 調劑術의 問題보다도 調劑에 使用되는 藥品의 知識과 그 運用의 知識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調劑의 劑形別은 되어 있으나 그 應用別, 臨床別, 知識을 가질 수 있는 方向提示가 最少限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2. 藥典의과 重復된 곳이 많으며 藥劑學으로서의 濃縮化가 必要하다. 藥劑學이 藥典, 藥事法規에 저속되는 項目이 많다는 것은 理解할 수 있으나 藥劑學理論과 實習에 置重하였으면 한다.

3. 調劑, 製劑의 實習을 完全 分離하여 實習을 強化하여야 하겠다. 形式에 치우쳐 調劑의 實習에서 系統別 調劑學 또는 處方學實習을 하여야 하겠다. 또한 國內藥品의 一般的인 것에서 特殊藥品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한 內容 作用劑形에 對한 實習教育이 必要하다. 製劑學에서는 合成藥品의 製造를 除外한 國內製藥 病院藥局的 製劑를 調査감안하여 이에 對한 重點的인 實習을 하여야 할 것이며, 同時에 이에 對한 基本檢定法까지도 分析學에서 하여야 할 以外の 問題가 許多하므로 製造→檢査→包裝에 이르는 知識의 習得이 必要하다고 생각 한다.

現下 藥大의 藥劑學 textbook 內容을 살펴보면 病院藥局에 關한 記術이 모두 既에 그치고 있다. 모든 病院藥局的 內容이 教科書에 담을 수는 없는 것이나 이러한 比重은 現在까지 얼마나 病院藥局에 對하여 藥劑學教育內容에 무게를 두고 있나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實際로 藥劑學을 工夫하였다는 藥大四學年生이 放學期間에 實習한다고 나오는 學生에게 大學에서 病院藥局에 關한 講義를 들었느냐고 물으면 거의 모른다라는 對答이다.

이 學生들에게 藥局, 病院 藥局에 대한 orientation만을 하는 데도 거의 3~4時間이 걸린다. 그러니 이러한 學生 또는 藥大卒業生에게 直接 病院藥局的 基本이며 基礎라고 할 수 있는 處方の 取扱 및 調劑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은 自明한 일이 아니겠는가? 自然히 既成藥師의 助手格인 役割밖엔 할 수 없으며, 藥包紙를 짜는 機能밖에 할 수 없으니 여기서 先輩에게서 배운다는 것이 고작 處方の 機械的調劑이고 보니 優秀한 能動的인 創意的인 藥師가 되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 같다. 그러니 製劑 倉庫管理藥務 程度의 交替가 거의 不可能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 醫師, 看護員과의 藥의 投藥은 고사하고 對話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患者의 물음에도 그저 處方을 낸 醫師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式이 되고 말고 있으며 藥局을 맡아 運營할 指導者가 되기에는 거의 不可能한 느낌을 주고 있는 實情인 것이다.

病院藥局의 問題는 또한 病院藥師의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藥師가 女子란 點도 考慮되지 않을 수 없는 實情에 있는 것이다. 女子藥師가 大幅 增加하였으나 藥師의 平均 勤續年數가 우선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長期間의 經驗者가 적어졌으며 이로 因한 問題와 關連된 問題가 많은 것이다.

여기에는 病院藥局에서도 考慮해야 할 問題가 있는 것이다. 매우關係의 改善에서 男子藥師의 職場과 生活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도 또한 病院藥局의 業務가 점점 單調로와 짐으로써 業務自體에 對한 매력에 가지지 못한다는 것 등이 第一로 主要 原因이라고 하겠다. 然이나 이렇게 된 것도 또한 相對的原因으로 學校教育에서 何等의 考慮됨이 없이 病院藥局은 勤務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손쉽게 勤務할 수 있는 곳이 病院藥局이며 卒業後 잠시 몸을 담구었다가 그만두겠다는 意識下에서 病院藥局을 希望하는 사람은 女子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卒業生일지라도 막상 病院藥局에 들어와 일해 보면 自己 생각보다도 어려운 點과 自己 知識의 모자람이 더욱 계속할 興味를 찾지 못하고 빨리 그만둘 생각만을 재촉하게 된다는 것이다.

病院藥局의 業務로 男女를 가릴 必要는 根本적으로 없으며 藥師로서의 本分을 發揮하며 이에 對한 藥師로서의 價値를 發揮하고 나아가서 그 代價를 要求할 수 있는 사람이 必要하다. 여기에는 學校教育이 先行되어야 하고 다음 病院藥局이 이행함으로써 病院약국에 대하여 認識과 要求가 이루어져야 만이 앞으로의 病院藥局이 모든 점에서 改善되며 發展할 수 있으며 病院약국 약사의 希望을 주게 될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따라서 學校教育에서 우선 病院藥局에 對한 講義가 좀 더 具體的이며 理解할 수 있는 內容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로 이에 對한 實習이 履行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教育을 받는 곳은 역시 藥劑學에서 다루어져야 할 수 밖에 없으며 大學의 藥劑學 教室에서 우선 大學과 이러한 教育이 履行되도록 踴躍 強化되도록 努力하여야 될 것이다.

放學동안의 病院實習이라고 學生을 파견하는 것도 現在로서는 學校에서는 教室에서 맡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大學에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原因도 學校에서 病院藥局에 對한 敎科的 價値를 全혀 等한視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으며 藥劑學教室에서도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藥劑學에서 病院藥局에 對한 커리큘럼을 우선 設定하여 주기 바라며 病院약국 實習을 좀 더 敎科目的 하나로 計劃的 指導下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리하여 앞으로의 病院藥局 實習도 보내는 學校當局이나 받아 들이는 病院藥局側이나 兩者 모두 責任 있는 藥大教育의 一部로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藥劑學에서 病院약국에 對한 敎科

를 講究하여 內容을 設定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 病院약국과의 實質的인 關係를 가질 수 있는 制度를 마련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病院藥局이 藥大와의 緊密한 關聯을 가질 수 있는 制度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先行되어야만이 內容도 研究될 것이며 具體的인 方案도 樹立되고 또한 改善할 점도 나올 것이다.

끝으로 藥大教育에서 藥劑學뿐만이 아니라 全般的인 內容의 再檢討가 要求되어 있는 現實에서 藥劑學의 比重은 어느 部問보다도 藥大教育에서 가장 切實한 位置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病院藥局의 現實과 앞날의 추세도 매우 우려되는 바 크다고 하겠다.

藥劑學에서 이러한 問題를 研究檢討하지 않는 限 病院약국의 希望을 둘 곳이 없음을 切感하며 藥學大學의 藥師教育이 藥劑學에서 마무리 지어짐을 再三 強調하는 바이다.